바른 법음 새세상 열리다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종정 권한대행 혜운 스님



환희로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진리의 바른 법음이 시방세계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덧없는 삶의 괴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하게 하셨으며, 그 고통의 바다를 지혜롭게 넘어서는 정법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법불교가 걸어갈 길은 부처님의 금구명언을 깊이 존중하고, 이를 일상의 치열한 삶 속에서 오롯이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탐진치를 여의어 마음을 맑히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화합의 넉넉한 길을 열어갑시다.

큰 원력으로 세상을 밝히다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사부대중과 지역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대원력으로 고해에 빠진 중생의 고통을 굽어살피시고, 해탈을 향한 수행과 실천의 참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대원의 깊은 뜻은 개인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뭇 생명을 구제하겠다는 거룩한 큰 서원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으로 우리 경남 곳곳에 밝고 따뜻한 희망의 연등이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청정 본성을 지켜야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하나의 종교가 일어나 종지(宗旨)를 세운 후 그들은 여지없이 탐욕에 물들어 분파, 파종 되는 등 수없이 파벌이 번져나갑니다. 종권을 유지하려는 이른바 종교 전쟁을 일으켜 전 인류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나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께서 이것을 크게 염려하여 한마디로 주신 가르침이 身動心不動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신의 정신세계와 마음만은 청정한 자신의 본성(本性)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요 올바른 불자의 자세 일 것입니다.

스님한마음등불 세상을 잇다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환희작약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사부대중과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한마음으로 자비와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티 없이 청정하며, 그 마음의 실상을 똑바로 직시하면 모든 괴로움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한마음은 삿된 분별심을 훌훌 내려놓고, 만물이 서로 얽혀 있는 인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미움을 녹이는 화해의 말과 아낌없는 선행으로 단절된 세상을 따뜻하게 잇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사회 만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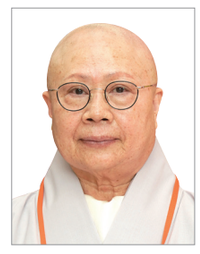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신지 2570년이 되는 성스러운 날입니다. 인류의 스승이시며 뭇중생의 구원자이신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오며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간의 갈등으로 신음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시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따를 때 이 사회는 불국정토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에 희망을

불교정중연등종 이사장 도심 스님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 속을 헤매는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의 참된 불성을 일깨우고자 이 땅에 나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숱한 갈등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정성껏 밝히는 연등이 나와 가족을 넘어,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화합과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정중연등종은 늘 대중과 함께하며 자비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자비로 지구촌 평화를

대승불교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스님



화엄경에는 우리의 마음이 맑으면 온 세계가 맑아진다 실법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과 분열, 불안과 혼란 속에 살고 있지만, 모든 해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어둠을 열고 밝은 희망의 길로 나갈 것입니다.

전통법맥 오늘에 빛나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 혜봉 스님



부처님의 지엄한 가르침은 수천년의 오랜 세월을 지났으나, 그 진리의 뜻은 언제나 낡지 않고 새롭습니다. 불교의 전통은 박제된 과거에만 머무는 이름이 아니라, 어지러운 오늘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생생하고 튼튼한 뿌리입니다. 묵묵히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가원력 새 희망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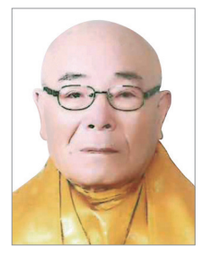
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성보 스님



출가 수행자인 승가의 굳은 원력은 산사에서 조용히 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진리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이웃들의 곁에 든든히 서고, 번뇌에 지친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동체대비의 길에 매진합시다.

성불 진리는 가장 큰 행복

금강조계종
종정 법두 수암 스님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 갑시다. 이서로 화합하고 서로

청정계율로 청정세상을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닦는 여정이, 탐욕을 여읜 바른 생활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계율은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타락으로부터 자신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자비의 울타리입니다. 함청백한 삶으로 세상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지혜로운 불자가 됩시다.

응공자비 고통을씻다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부처님은 지극한 존경과 공양을 받으실 응공이시자, 동시에 고통받는 뭇 중생을 향해 한없는 대자대비를 베푸신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봉축의 참뜻은 단순히 부처님을 찬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 내몫을 내어주는 실천에 있습니다. 메마른 세상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어 생명의 등불을 환히 밝힙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화합의 정토를 열어갑시다.

보살행원 평화로 피다

대한불교대승조계종
총무원장 자운 스님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얻은 깨달음이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자비행으로 회향될 때 비로소 완벽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혐오와 갈등이 난무하는 각박한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화합과 용서를 선택하고,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희망의 등불을 묵묵히 나누어주는 실천하는 불자가 됩시다. 크나큰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며 나아갑시다.

대승보살 세상을 품어라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관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중생구제를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생명이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행복의 피안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일상의 작고 소박한 선행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배려로 삭막한 세상을 넉넉히 품어 안는 참된 보살이 됩시다. 넓은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雲耕

僧正院長 錦龍
首席副議長 靑峰
次席副議長 慧雲
僧正 智山,雲岩,知足,智巖,修庵,雪雲,普經,南坡,三學,法蓮,圓峰,守敏,守悅,宗演,知足,慧雲,大隱

元老會議 議長 虎溟
首席副議長 智玄
次席副議長 性悟
議員 法京,能華,東佑,祥明,雲山,錦明,道光,觀正,會梵,慧周,雪峯,雪山,碧山,月峰,一雲,瑞峰

中央宗會 議長 法輪
首席副議長 圓日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九山
副院長 幻明
委員 晩愚,智行,月照,海雲,一住,圓悟,滿虛

初審院長 六和
副院長 杲峰
委員 哲悟,曉門,晩松,峻凡,眞空

中央選擧管理委員長 正雲
副委員長 智滿
委員 法一,智勤

總務院長 常眞
行政副院長 道惺
財經副院長 永範
總務部長 正眼
教務部長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道輝
文化部長 月陀
社會部長
弘報部長 法眞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宗正禮敬室長 東虛

教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教院長 能解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智空
社會福祉院長
佛教文藝院長 松月
太古文化遺産傳乘事業團長 智虛

東邦佛教大學學長 法潭
教學處長 哲悟
韓國佛教新聞社長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全國信徒會長 圓覺
靑年會長 李正勳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